

## [18 ~ 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때 영릉태수 진한이 모반해 군사 수만을 거느리고 강을 건너 유주를 함락했다. 천자는 여러 번 대병을 보냈으나 이들이 번번이 패하자 문무 대신과 의논해 사문에 방을 붙여 장사를 모집했다. 이 소식을 들은 장영이 원 부인에게 말했다.

“소자가 이때를 타 국적을 소멸하고 원수를 갚고자 하나이다.”  
이 말을 들은 원 부인이 슬퍼하며 말했다.

“㉠ 내가 이미 장성했고 용맹이 뛰어나니 근심은 없으나 다만 내 나이가 많으니 다시 보지 못할 것 같아 슬프구나.”

영이 원 부인을 위로하며 말했다.

“모친은 과도히 염려하지 마소서.”

그러고는 원 부인에게 하직하고 집을 떠나 밤낮으로 달려 황성에 도착했다. 그리고 한 곳에 붙어 있는 방문을 보고 이를 때니 관원이 달려와 그 이유를 물었다. 영은 품속에서 자기가 쓴 상소를 내어 관원에게 주며 이를 천자에게 전하라 했다. 상소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익주 금병산에 사는 장영은 돈수백배하고 패하게 이 상소를 올립니다. 진한이 과거 남양태수 오세신과 공모해 신의 아버지 필한을 모함해 죽이고 어미를 겁박하려 했습니다. 이에 신의 모친이 피를 써 오세신을 죽이고 신을 보호하려다가 세신의 처 진씨에게 잡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유모가 신을 업고 익주로 달아났는데 송나라에서 벼슬하던 원귀의 누나가 거두어 양자로 삼았으니 신은 10여 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신의 부모가 오세신에게 죽은 줄 알았나이다. 그러니 진한은 신과는 같은 하늘 아래서 살 수 없는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음을 재촉해 모반했으니 이제 신이 복수할 때입니다. 원하건대 패하게서 신에게 한 무리의 병사를 빌려주신다면 진한을 베어 국가의 근심을 덜고 신의 원수를 갚겠나이다.’

상소를 모두 읽은 천자는 장영을 크게 칭찬하며 말했다.

“짐이 장사를 모집한 지 오래되었으나 응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지금 영의 상소를 보니 짐짓 장수와 제상의 재주를 모두 갖추었구나.”

그러고는 장영을 불러 보니 제비 새끼처럼 옆으로 퍼진 턱에 범 같은 머리를 갖고 있어 참으로 제후가 될 골상을 지녔을 뿐 아니라, 키는 8척이나 되었고 위풍 또한 늠름했다. 상이 그 모습을 매우 기특하게 여겨 말하기를,

“짐이 장영을 얻었으니 어찌 진한을 근심하리오?”

하고는 영을 대원수로 삼고 군사 6만 명을 주니 장영은 감사의 인사를 하고 즉시 군사들을 이끌고 경사를 떠났다.

며칠 후 영릉 지경에 도착한 장영은 먼저 진을 치고 진한에게 국가의 근심을 덜고 부모의 원수를 갚겠다는 내용의 격서를 보냈다. 이를 본 진한이 크게 화를 내자 한 장사가 자원해 싸우고자 했으니 그는 진씨의 오라비 진건이었다. 진한은 크게 기뻐하며 정병 3만을 주었고 진건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진 앞으로 나와 장영에게 싸움을 걸었다. 진건을 본 장영이 큰소리로 호통치며 말했다.

“너는 진한과 어찌 되는 놈이냐?”

진건이 말했다.

“나는 오세신의 처남 진건이다. 네 어미가 오 태수의 첩이 되었다가 간계를 써 태수를 죽이고 도망했거늘 내가 무슨 낮으로 큰소리를 치느냐?”

**[중략 줄거리]** 진건을 물리친 장영은 오세신의 아내 진씨를 붙잡고, 전쟁에서도 승리하여 익주자사가 된다. 진씨로부터 친모 한씨가 승려가 되어 살아 있다는 말을 듣게 된 장영은 계룡사에 가 한씨를 만난다.

꿈인지 생시인지를 깨닫지 못한 한씨가 장영을 붙잡고 울며 말하기를,

“영아, 내가 죽어서 너를 보는 것이냐?”

하고 혼절하자 장영과 계향은 놀라 급히 약물을 먹고 간호했다. 잠시 후 한씨가 정신을 차리자 장영은 원 부인에게 사람을 보내 모친의 소식을 전하는 한편, 모친을 모시고 법당으로 들어가 절을 올린 뒤 원 부인의 양자가 된 일부터 익주자사가 되어 계룡사에 오게 된 사연을 낱알이 고했다. 한씨 또한 그간의 일들을 소상히 말하며 두 사람은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슬퍼하며 함께 밤을 보냈다. 날이 밝자 장영은 한 부인을 모시고 원 부인의 집으로 돌아왔다. 두 부인은 서로를 반기며 예를 마쳤고 한 부인이 감사해하며 먼저 말했다.

“㉡ 부인에게서 내 자식을 거두어 양육해 부친의 원수도 갚고 나와 다시 만나게 하셨으니 이는 죽은 나무에 다시 꽃이 핀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 몸은 부평초처럼 떠다니다가 늙어 죽어 외로운 귀신이 되었을 것이니, 부인의 은혜가 백골난망이로소이다.”

원 부인이 겸양하며 말했다.

“이는 다 부인의 정절에 하늘이 감동하심이니 내게 무슨 공이 있으리오?”

장영은 이날 두 모친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고 두 부인은 답소하며 잔치를 즐겼다. 그런데 문득 어디선가 처량한 울음소리가 들려오니 장영은 크게 화를 내며 곡소리 내는 이를 잡아 오라 했다. 하인이 한 사람을 끌고 오니 이는 다름 아닌 진씨였다. 장영이 큰소리로 꾸짖으며 물었다.

“네 죄가 매우 중하거늘 죽거나 기다릴 것이지 어찌 방자하게 울어 흥을 깨는 것이냐?”

진씨가 말했다.

“즐거운 사람은 좋겠지만 서러운 사람이야 어찌 즐겁겠나이까?”  
장영이 화가 나 칼을 뽑자 한 부인이 급하게 말리며 말하기를,  
“진씨는 착한 부인이다. 남편을 위해 복수하려는 것이 당연하니 어찌 죽이겠느냐?”

하고는 진씨를 붙들어 자리에 앉히고 위로하며 말했다.

“제인사에서 헤어진 뒤 소식이 끊겼는데 오늘 이리 보니 매우 반갑구려. 그대는 여전히 날 해할 마음이 있는가?”

진씨가 답했다.

“그 마음이 죽기 전에는 어찌 사라지리오?”

이 말을 들은 한 부인이 탄식하며 말했다.

“진실로 열녀로다.”

그러고는 영을 돌아보며 말했다.

“진씨가 나를 해치려는 것은 내가 오세신을 죽인 것과 같으니,  
저가 내게는 원수이나 또한 열녀로다. 죽이는 것이 불가하니  
인마(人馬)를 갖추어 체집으로 보내거라.”

장영은 모친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어 진씨를 놓아주었다.

— 작자 미상, 「장한절효기(張韓節孝記)」—

1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있다.
- ③ 꿈과 현실을 교차하여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암시하고 있다.
- ④ 우의적 소재를 통해 대상에 대한 풍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배경을 감각적으로 표현하여 환상적인 분위기를 부각하고 있다.

19.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천자의 군사들은 진한의 군사들에게 여러 차례 패하였다.
- ② 황성에서 장영은 관원을 통해 천자에게 상소를 전했다.
- ③ 영릉 지경에 도착한 장영은 진한에게 격서를 보냈다.
- ④ 법당에 들어간 장영은 계향이 간호하던 한씨를 발견했다.
- ⑤ 원 부인의 집에 돌아온 날에 장영은 두 모친을 위해 잔치를 열었다.

20.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서는 자신의 사정을 언급하며 비애감을 드러내고 있고, ㉡에서는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며 상대방에게 자부심을 표출하고 있다.
- ② ㉠에서는 상대방의 능력을 강조하며 자신의 기대를 드러내고 있고, ㉡에서는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며 상대방의 환심을 사려 하고 있다.
- ③ ㉠에서는 다른 사람의 견해를 인용하여 상대방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고, ㉡에서는 상대방의 행동을 언급하며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 ④ ㉠에서는 사건의 경과를 드러내며 상대방에 대한 의혹을 제시하고 있고, ㉡에서는 상대방이 처한 문제를 언급하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에서는 자신의 처지를 언급하며 미래의 일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고, ㉡에서는 실제 일어난 일과 반대의 상황을 가정하며 상대방에 대한 감사를 드러내고 있다.

2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장한절효기」는 두 가문의 반복되는 갈등을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인물들은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가족과 이별을 겪기도 하고 국가의 위기와 관련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인물들은 효와 절이라는 윤리적 가치를 자신의 입장에서 충실히 지키며 상대방에게 맞서는데, 자신을 적대하는 상대의 입장에서 그 행동의 윤리적 가치를 인정해 주는 인물도 나타난다.

- ① 장영이 천자에게 병사를 요청하며 자신의 각오를 드러내는 것에서, 국가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고 자식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바를 하고자 함을 짐작할 수 있군.
- ② 진건이 장영과 대적할 때 과거에 장영의 어머니와 오세신 사이에 일어났던 일을 언급하는 것에서, 두 가문의 갈등이 반복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군.
- ③ 한씨와 장영이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그간의 사연을 이야기하는 것에서, 이별을 겪었던 가족이 재회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군.
- ④ 원 부인이 한씨의 정절을 치하하며 한씨에게 공을 돌리는 장면에서, 자신과 맞서고 있는 상대의 행위에 대해 윤리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군.
- ⑤ 진씨가 한씨에게 자신의 심중을 토로하는 장면에서, 남편의 원수를 갚음으로써 윤리적 가치를 자신의 입장에서 지키려 함을 짐작할 수 있군.

[22 ~ 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청원정(淸源亭) 돌아들어 **고을을** 바라보니  
 소나무 굳은 절개 지금도 빛이 난다  
**충효도** 갖추었구나 **열녀도** 많고 많다  
 서하(西河)의 미속(美俗)이오 추로(鄒魯)\*의 유풍(儒風)\*이라  
 늙은이가 성은 입어 이 땅의 **수령** 되니  
**유풍을** 가르칠까 **교화를** 이끌까  
 공자 맹자 아니라도 천성을 길러준다  
 ㉠ 백성들이 **감화하니** **교화할** 필요 없네  
 엇그제 수령 되었는데 어느 사이 삼 년이고  
 유산(遊山) 음주는 안 하는 것이 옳지만은  
 풍속을 살피는 것은 아니하고 어찌하리  
 춘강에 **배를 띄워 노룡연(老龍淵)으로 내려가니**  
 ㉡ 강가의 술바람은 거문고 소리에 **화답하고**  
**바위 사이 진달래는 푸른 물결에 비치네**  
 어부의 긴 그물을 상하에 가로 치니  
 한 자 넘는 큰 물고기 물가에 솟아 뛰니  
 ㉢ **한유(韓愈)의** 가을 독서 두보의 겨울 시회(詩會)  
 이 거동과 견주면 어느 것이 낫단 말이고  
 ㉣ **남여(藍輿)에** 비스듬히 앉아 **백석정(白石亭)에 오르니**  
**사람은 어디 가고 빈터만 남았는가**  
 청풍이 완연하여 노송에 머물렀나  
 외로운 배로 거슬러 올라 영귀정(詠歸亭)에 내려 앉아  
 송림을 바라보니 ㉤ **퇴계** 선생 사당이로다  
 사당 뜰에서 경건하게 신위에 배례하니  
 모습을 뵈는 듯 백 년이 지났어도 감개가 무량하다  
 공자는 근원 멀고 정자(程子)\*는 가까우니  
 후학이 옛일 보아 퇴계 선생 본받아라  
 (중략)  
 팔월 보름밤에 수조가(水調歌) 읊으니  
 천 년을 짧은 시간으로 여기니 마음은 한가지라  
 모진 바람 땅을 쓸고 자욱하게 눈 내릴 때  
 ㉥ **깊은 밤 명금각(鳴琴閣)에** 촛불을 밝게 켜고  
**고아주(羔兒酒) 가득 부어 고운 노래 들으니**  
 지방 수령의 영화로움 이것 외에 또 있을까  
 사미인곡 한 곡조에 뜨거운 마음 절실하다  
 나라에 몸을 바쳐 백성을 다스리니  
 높은 벼슬에 못 올랐으나 **선정에 힘을 쓴다**  
 나랏일도 분주하고 병도 점점 깊어지나  
**임금님께 매인 마음** 잠들기 전 잊을쏘나

— 정식, 「축산별곡(竺山別曲)」—

\* 추로: 맹자의 출생지인 추나라와 공자의 출생지인 노나라.

\* 유풍: 유학의 풍습.

\* 정자: 송나라 때 성리학자 정호와 정이.

(나)

옥중의 아무는 평소 내가 믿고 존경하던 사람이라 문장을 짓고 윤색할 때면 심부름꾼을 통해 서신을 주고받으며 조언을 구하곤 하였다. 하루는 그가 나에게 말을 전해 왔다.  
 “나는 지병이 있는 몸으로 횡액을 당하여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소. 이런 사정을 수령에게 알려 선처를 구하고 싶으니, 그대가 나를 위해 글을 지어 주소.”

나는 애처로운 마음에 곧 초안을 작성하여 그의 지친이라는 사람에게 보여 주었다. 그런데 지친이란 자가 다 읽고 나서 벌컥 화를 내며 말하였다.

“이런 글을 올리면 틀림없이 노여움을 사게 될 것이외다. 그리고 문장이 영 좋지 않으니 못 쓰겠소이다. 갑(甲)에게 청해 보리라.”

갑은 그의 이웃인데 문명(文名)이 있는 사람이었다. 곁에 있던 사람이 이 말이 공정한 말이 아님을 알고는 즉시 거것으로 돌려대었다.

“이 글은 갑이 지은 것이오. 집사는 어찌 그리 안목이 없으시오?”

이 말을 듣고 그 지친이란 자가 한참 동안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말하였다.

“그렇소이까? 다시 보니 이것도 어지간하군그래.”

또 한참 있다가,

“이거 좋소이다. 정말로 갑의 솜씨구먼.”

하더니, 또 한참 있다가는 손으로 탁자를 치며 말하였다.

“내가 건성으로 보았다가 좋은 문장을 놓칠 뻔했소이다. 이 글이 올라갔다 하면 아무는 틀림없이 풀려날 것이외다. 아무 구(句)와 아무 자(字)는 기이하고 묘하오이다. 갑이 아니고서야 이런 글을 지을 수 없지요.”

그러고는 마침내 써 올리기를 허락하였다. 나는 밖으로 나와서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였다.

“사심(私心)은 참으로 털끝만큼도 마음속에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략)… 이 글은 한 편의 문장일 뿐입니다. 그런데 제 글이라 생각하고 보면 좋지 않고 갑의 글이라 생각하고 보면 볼수록 좋아지니, 우물이 장술을 깎아내리고 심약에게 아첨한 방법이 바로 이러하였습나다. 글이 금세 탈바꿈해서도 아니고 눈이 잠깐 사이에 바뀌어서도 아니라 오직 보는 자세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글을 평가할 적에 **글 자체**의 좋고 나쁨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글쓴이의 명성이 있고 없음에 따를 뿐이니, 식자(識者)의 입장에서는 비웃음을 당한다고 수치스러울 것도 없고 칭찬을 받는다고 영광스러울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글쓴이의 명성**을 기준으로 **글을 평가하지 않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갑은 일찌감치 과거에 급제하여 문단(文壇)에 이름을 드날렸으니, 명성이 이미 사람들의 심안(心眼)을 휘어잡기에 충분합니다. 반면에 저는 비록 어려서부터 글을 읽어 옛 성인의 도를 배우고 있지만 20세가 넘도록 이룬 것이 없어 보잘것없는 신세이니,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평소 자신을 돌아보면** 두려워서 출지도 않은데 **몸이 떨리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을 당하고 보니 더욱 자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까 저 사람이 제 글을 한번 깎아내리고 치켜세우는 동안 저는 부끄러운 마음이 없지 않았으니, **이번 경험**이 스스로 분발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유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까 저 이가 사람이 나쁘다고 그 사람의 좋은 말까지 버리지는 않았던 옛 성인의 원칙을 펴개치고 따르지 않은 것은 슬프지만 그렇다고 어찌 탓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 ㉦ **퇴계** 선생이 시골집에서 “이 서방!”하고 부르는 소리를 듣고는 자기를 부른다고 생각하여 찬찬히 살펴보니 촌부를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퇴계 선생은 ‘나도 이 서방이고 저

사람도 이 서방이라 호칭이 같기 때문에 이런 수모를 당한 것이다.’ 생각하고는 더욱 노력하여 마침내 과거에 급제하고 결국 대현(大賢)이 되었습니다. 제가 자초한 것도 퇴계 선생의 경우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 윤기, 「명성에 대하여」 —

22.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해석적 표현을 활용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열거의 방식을 활용하여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구체적 지명을 활용하여 현장감을 높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계절적 배경을 활용하여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23.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무력감이 나타난다.
- ② ㉡: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생각이 나타난다.
- ③ ㉢: 다른 인물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이 하고 있는 행위에 만족감을 느끼는 모습이 나타난다.
- ④ ㉣: 새로운 장소로 이동한 후 느낀 심회가 나타난다.
- ⑤ ㉤: 늦은 시간에 흥취를 돋우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

24.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가 자신과 다름이 없다고 여기는 대상이고, ㉢는 글쓴이가 자신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대상이다.
- ② ㉠은 화자가 본받으려고 하는 대상이고, ㉢는 글쓴이가 타인에게 도움을 받은 것을 후회하게 하는 대상이다.
- ③ ㉠은 화자가 후학에 대한 권면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 언급한 대상이고, ㉢는 글쓴이가 자신의 논지를 강화하기 위해 언급한 대상이다.
- ④ ㉠은 화자가 자신이 머무르는 공간에서 벗어나기 위해 활용한 대상이고, ㉢는 글쓴이가 어려움에서 벗어나 수 있도록 해 주는 대상이다.
- ⑤ ㉠은 화자가 자신이 겪은 고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활용한 대상이고, ㉢는 글쓴이가 자신의 생각과 상충되는 의견들을 절충하기 위해 활용한 대상이다.

25.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글쓴이는 논의의 대상을 타인의 행위에서 자기 자신에게로 전환하고 있다.
- ② 글쓴이는 자신에 대한 다양한 인물들의 평가를 반박하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다.
- ③ 글쓴이는 타인의 주장을 두둔함으로써 해당 인물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글쓴이는 타인의 삶의 내력을 시간순으로 제시하며 해당 인물의 모순적인 태도를 지적하고 있다.
- ⑤ 글쓴이는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언급하면서 타인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26.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사대부에게 관직은 사회적 책무를 실천하는 기반이면서, 개인적 성취의 수단이 되기도 했다. (가)의 작가는 지방관으로, 직무를 행하며 풍속을 살피고 경관을 감상하며 풍류를 즐기는 중에 선정에 의지와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드러내고 있다. (나)의 작가는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대부로, 세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이를 정진의 계기로 삼으며 지위와 명예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 ① (가)의 ‘고을을 바라보’며 ‘충효도 갖추’고 ‘열녀도 많’다고 한 것에서 지역의 풍속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드러나 있군.
- ② (가)의 ‘배를 띄워 노룡연으로 내려가니’ ‘바위 사이 진달래는 푸른 물결에 비’친다는 것에서 주변의 경관을 감상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군.
- ③ (나)의 ‘글 자체’보다 ‘글쓴이의 명성’에 따라 ‘글을 평가하지 않는 사람이 벗어나 되겠’냐고 한 것에서 대상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편견을 갖는 세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드러나 있군.
- ④ (가)의 ‘수령 되’어 ‘유풍을 가르칠까 교화를 이끌까’라고 한 것에서 지방관으로서 수행해야 하는 직무를 생각하는 모습이, (나)의 ‘평소 자신을 돌아보면’ ‘몸이 떨’린다는 것에서 지금까지 지위와 명예를 추구하며 살아온 것을 반성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군.
- ⑤ (가)의 ‘선정에 힘을 쓴다’고 하며 ‘임금님께 매인 마음’을 잊지 않는다고 한 것에서 사회적 책무를 떠올리는 모습이, (나)의 ‘이번 경험’을 자신에게 ‘유익한 일’로 여긴다는 것에서 자신이 겪은 일을 개인적 성취를 위한 정진의 계기로 삼는 모습이 드러나 있군.

[27 ~ 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낮이 기운 뜨거운 별은 사정없이 내리쬘어서 다니기도 어려운 노릇이다. 그는 한참 서서 망설이다가 기운 없는 다리를 겨우 끌고 ××신문사로 찾아갔다. ××신문사 학예부에 있는 **김을 찾아서 원고를 써주기로 하고 돈 교섭**을 할 작정이다. 그것도 조르기는 괴로운 일이나 어떻게 하든 도리가 없으니 엄치를 등 뒤에 물리치고라도 교섭하는 수밖에 없었다.

“글쎄 미리는 지출치 않아…… 얼마간 써서 실은 뒤가 아니면 어려운데…… 이삼 일 안으로 좀 써보지……”

김도 춘수의 형편이 딱한 듯이 말하였다. 춘수는 하는 수 없이 이삼 일 안으로 무엇이나 쓰기로 하고 거리로 나왔다. 그는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거리로 내려오다가 다시 청진동 골목에 들어서서 중학동 어떤 친구를 찾아갔다. 몸에 열은 그저 내리지 않아서 걸을수록 더욱 괴로웠다.

그는 한참 만에 중학동 천변에 있는 어떤 집 앞에 이르렀다. 정작 대문 앞까지 이르니 발이 무거워서 들어갈 수가 없었다. 괴로워하는 남을 조르기도 어려운 일이고, 갖은 공한 소리를 다 하면서 구걸하기도 자기의 존재가 아주 깃잡히는 것 같았다. 그는 한참 서서 망설였다. 그러나 **목전의 현실은 그의 발을 문 안으로 끌어들었다**. 그 친구는 있으나 다른 사람이 있어서 그는 할 말을 못 하고 한편에 앉아서 신문을 보면서 그 사람이 가기만 기다렸다. 그러나 그 사람은 열른 가지 않고 신문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나중에는 그 사람이 미운 생각까지 났다.

춘수는 두 시간 뒤에 그 집을 나섰다.

등 뒤에서 손가락질을 하고 알지 못할 그림자가 두 어깨를 꼭 누르는 것 같아서 발이 땅에 닿지 않다시피 뛰어나왔다.

“또 만남시다.”

하는 주인의 소리는,

‘다시는 오지 말아주오. 제발.’

하는 소리 같아서 마음이 근절근절하였다.

대문 밖에 뛰어나와서 호주머니에 든 ① **원 지폐**를 다시 만져 보니 큰 성공이나 한 듯이 시원하였으나 몇 걸음 못 나가서 다시 이마를 찌푸리지 않을 수 없었다.

“어린것이 몹시 앓는데 자네 돈 원 변동해주게…… 곧 갚으리.”

하고 죄 없는 어린애를 빙자하여 말한 것도 마음에 괴롭거니와 **그 사람과 같은 제배**\*건만 죄송스러운 목소리로 종이 상전의 앞에나 선 듯이 구걸하던 **자기의 그림자가 눈앞에 떠오를 때** 그는 자기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싶었다.

**[중략 줄거리]** 춘수는 열과 설사가 더 심해지고 팔까지 아프기 시작하자, 딸의 약을 얻기 위해 미안함을 무릅쓰고 의사에게 찾아간다.

“웬일이요? 여름에 뎁은 무사하오?”

진찰을 마친 의사는 의자에 앉은 춘수를 보면서 말을 붙였다. 그의 태도는 조금치도 춘수를 귀찮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으나 춘수의 마음에는 모든 것이 외식\*같이 보였다.

“편하면 또 왔겠소…… 허허.”

춘수가 말을 다하기도 전에,

“또 누가 앓소? 누가.”

의사는 벌써 알고 있다는 듯이 말하였다.

“어린애가 열이 나고 설사를 어떻게 몹시 하는지…… 또 졸라 왔소……”

춘수는 기분이 좀 폈다.

“응 그거 안됐는데…… 가만……”

하더니 그는 의자를 돌려 책상에 마주 앉아 처방지를 펴놓더니 다시 춘수를 보면서,

“언제부터?”

하고 묻는다.

“밤부터.”

하는 춘수의 말이 떨어지두마두 해서 의사는 처방을 써서 간호부에게 주면서 열른 지어오라고 부탁하였다.

“저 약을 써 보셔요…… 그런데 뎁은 왜 그리 빠졌소? 어디 편찮소?”

의사는 다시 의자를 가로타고 앉아서 담배를 피우면서 물었다. “설사가 나더니 이질이 되는 듯해서 마늘즙을 좀 먹었더니 좀 괜찮은 듯하나 아직도 덜 좋은데……”

춘수는 말하고 나서,

“병이나 없어야 살지! 허허.”

하고 웃었다.

“**병 없으면 나부터 못 견딜걸……** 하하하.”

의사의 말에 춘수는,

“**나 같은 병자야 있으나 마나.**”

하고 마주 웃었다.

그때 간호부가 약을 들고 들어왔다. 의사는 다시 간호부에게 무어라고 하더니 간호부는 약국에 나가서 갑에 넣은 ② **알약**을 가지고 왔다.

“이 물약과 가루약은 어린애한테 먹이고 이진 뎁이 잡수.”

의사는 약을 춘수에게 주면서 말하였다.

춘수는 병원을 나섰다. 그날은 의사의 기분이 좋아서 그의 기분도 경쾌하였다.

하여튼 고마운 일이다. **가는 때마다 거절 없이** 하여 주는 것은 눈만 감으면 코를 베어 먹을 세상에서 고마운 일이다. 그 까닭이 있는 일이지만 춘수로서는 미상불 **감사히 생각**할 일이다. 그러나 **남의 기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자기의 기분을 생각하니 그들에 피는 꽃과 같아서 세상에서 **비열한** 것은 자기 하나뿐만 같다.

“이러구 살아서 뭘 하오.”

그는 거리로 걸어가면서 이렇게 뇌면서도 어린것에게 먹일 약이 손에 쥐어진 것을 펍 기뻐하였다.

— 최서해, 「무명초」 —

\* 제배: 나이나 신분이 서로 같거나 비슷한 사이의 사람.

\* 외식: 겉만 보기 좋게 꾸미어 드러냄.

27.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역순행적 구성을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액자 구조를 통해 상이한 이야기가 갖는 유사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③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을 병렬적으로 구성해 입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④ 시대적 배경에 대한 서술을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의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작품 밖 서술자가 특정 인물이 겪는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28. '춘수'의 입장에서 ㉠과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상대방이 자신을 설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고, ㉡은 자신이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다.
- ② ㉠은 자신의 요청에 따라 상대방에게 받은 것이고, ㉡은 자신이 직접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에게 받은 것이다.
- ③ ㉠은 자신의 권위를 상대방에게 보여 주기 위한 것이고, ㉡은 상대방의 권위를 확인하게 해 주는 것이다.
- ④ ㉠은 상대방이 자신을 찾아오게 된 이유이고, ㉡은 자신이 상대방을 찾아가게 된 이유이다.
- ⑤ ㉠은 상대방의 신뢰를 얻게 된 계기이고, ㉡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된 계기이다.

29.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김은 춘수가 원고를 쓰기 전에 미리 원고료를 주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 ② 춘수는 중학동 어떤 친구의 집에서 다른 사람이 가기를 기다렸다.
- ③ 주인은 자신의 집을 나서는 춘수에게 다시 오지 말아 달라고 했다.
- ④ 의사는 처방을 쓰기 전에 춘수의 딸이 언제부터 아팠는지를 물었다.
- ⑤ 춘수는 자신의 증세가 심해지는 것 같아 마늘즙을 먹었다고 의사에게 말했다.

30.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무명초」에는 극심한 빈궁 속에서 자괴감을 느끼는 지식인의 내면세계가 드러나 있다. 이때 자괴감은 현실적 문제를 타개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되는데, 이는 자신에 대한 모멸감 등으로 변주되며 지속된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작중 인물은 자신의 처지에 공감하는 타인으로부터 일시적으로나마 위안을 얻기도 한다.

- ① '김을 찾아'가 '원고를 써주기로 하고 돈 교섭'을 하려는 것에서, 작중 인물이 지식인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현재의 상황을 벗어나려고 함을 짐작할 수 있군.
- ② '목전의 현실'이 '그의 발을 문 안으로 끌어들었다'는 것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하지 않는 상황을 감내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군.
- ③ '같은 제배'인 '그 사람'에게 돈을 빌리던 '자기의 그림자가 눈앞에 떠'올랐다는 것에서,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 모멸감을 느꼈음을 짐작할 수 있군.
- ④ '병 없으면' '못 견딜' 것이라는 말에 '나 같은 병자야 있으나 마나'라고 답하며 '마주 웃'는 것에서, 상대의 빈궁한 처지에 대해 언급하며 서로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인물들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군.
- ⑤ '가는 때마다 거절' 없던 것에 '감사히 생각'하면서도 '남의 기분'에 영향을 받는 자신이 '비열'하다고 여기는 것에서, 일시적으로 위안을 얻는 중에도 자괴감이 지속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군.

[31 ~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느 간절한 사람도 없는 곳  
고향으로 간다

머나 먼 날 저버린  
고향으로 내가 간다

㉠ 낡은 옷 훌훌이 벗어 버리고  
생미역냄새 하얗게 마시며 고향으로 간다

잃어버려, 끝내 잃어버려  
없는 고향이라 포개둔 그리움이 한결 짙어  
눈감아도 뒤흔던 예엿 어린 시절  
좁은 골목 골목들이 서연하게 다가 오구나

세월이 흘러  
내 ㉡ 또한 흘러  
땀도는 지점에서 소용돌이가 되는 황혼무렵

통곡은 이미 사치스러운 것  
무딘 신경에  
새론 출발의 기적을 울리며  
고향으로 간다

없는 고향이라 ㉢ 사뭇 그리워  
그 그리움을 캐러 고향으로 내가 간다

- 김용호, 「고향으로 간다」 -

(나)

그들은 떠났다  
무너져내린 판잣집들, 흩어진 유리 조각,  
㉣ 검은 재를 밟으며 돌아오는 나에게  
참새 한 마리  
그들이 떠났다는 전언을 전하려는 듯  
전선 위에 남아 있다가 이내 날아간다  
저 새  
제 날개의 가벼움으로 날아가듯이  
나 이제 어떤 가벼움으로 살아야 하나  
고향처럼 지나던 그 골목 잃어버리고  
창 너머 백열등 불빛에 젖어 보던 저녁도 잃어버리고  
재와 흙이 섞여가는 길 위에서  
㉤ 어떤 황혼에 물들며 서 있어야 하나  
새 아파트에 살면서 그들의  
매 묻은 벽지를 정겹다 말했던 나는  
침대에 몸을 눕히고 살면서 그들의  
낮은 잠자리 기웃거리던 나는  
잃어버렸다, 그들을, 또한  
누군가의 가난을 필요로 했던 반성과  
누군가의 비참을 필요로 했던 그리움을  
아,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던 애뜻함을

그들은 떠났다  
 닭의 울음소리를 데불고,  
 푸른 이불과도 같이 누추한 지붕을 가려주던  
 호박 덩굴마저 거두어내리고 ㉠ 충충히 사라졌다  
 내 마음의 덩굴손이여  
 너는 ㉡ 또 어떤 누추함에 뿌리를 내리려느냐  
 누구의 가난을 또 푸르게 덮으려느냐  
 허공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굴광성\*의 영혼이여  
 - 나희덕, 「그 골목 잃어버리고」 -

\* 굴광성: 식물체가 빛의 자극을 받아 나타내는 굴성. 잎과 줄기는 빛의 방향으로, 뿌리는 그 반대 방향으로 구부러짐.

3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감탄사를 사용하여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는 명령적 어조를 활용하여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나)는 명사형으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시적 여운을 주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시적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구체적인 청자를 설정하여 대상에 대한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다.

32.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가 상황이 변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고, ㉡은 화자가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다.
- ② ㉠은 화자가 상황의 변화를 앞두고 자신과 분리하는 것이고, ㉡은 화자가 주변 상황의 변화를 실감하게 하는 것이다.
- ③ ㉠은 화자가 처한 상황이 변하게 된 원인을 보여 주는 것이고, ㉡은 화자가 자신의 변화로 인해 일어날 상황을 예상하게 하는 것이다.
- ④ ㉠과 ㉡은 모두, 화자가 주변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활용해야 하는 것이다.
- ⑤ ㉠과 ㉡은 모두, 화자가 주변 상황의 변화로부터 자신이 소외되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33.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세월' 이외에 다른 존재도 흐른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 ② ㉡: '고향'을 '그리워'하는 감정의 깊이를 드러내는 표현이다.
- ③ ㉢: '재와 흙이 섞여가는 길 위에서' 자신이 '황혼에 물들'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의문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 ④ ㉠: '그들'이 급하고 바쁘게 '사라졌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 ⑤ ㉢: '내 마음의 덩굴손'이 '누추함에 뿌리를 내리'는 행위가 과거에도 있었음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인간이 상실의 경험에 대응하는 양상은 다양하다. 시에서는 이러한 상실의 경험이 화자의 행동이나 사유로 형상화되기도 한다. (가)의 화자는 과거에 떠난 삶의 공간이 이전의 모습을 잃었음에도 그 모습을 잊지 못하고 그곳으로 향한다. (나)의 화자는 자신이 삶에서 의미를 부여했던 존재를 잃어버리는데, 그들이 머물렀던 공간이 달라진 상황을 계기로 과거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자신이 지녀야 할 삶의 태도를 고민한다.

- ① (가)의 '눈감아도' '좁은 골목 골목들이 서연하게 다가'온다는 것에서 화자가 과거의 기억을 잊지 못하고 떠올리고 있음을 엿볼 수 있군.
- ② (가)의 '그리움을 캐러 고향으로' '간다'는 것에서 화자가 떠난 곳을 향해 가는 목적을 엿볼 수 있군.
- ③ (나)의 '그들의' '때 묻은 벽지를 정겹다 말했던 나'에 대해 '누군가의 가난을 필요로 했'다고 하는 것에서 화자가 과거의 모습을 성찰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군.
- ④ (나)의 '침대에 몸을 눕히고 살면서' '낮은 잠자리'를 '기웃거리'는 것에서 화자가 앞으로의 삶의 태도를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군.
- ⑤ (가)의 '끝내 잃어버려' '없는 고향'이라는 것에서 화자가 과거에 살던 공간이, (나)의 '그들은 떠'나고 '판잣집들이' '무너져내'렸다는 것에서 화자가 의미를 부여했던 존재가 살던 공간이 이전과 달라졌음을 엿볼 수 있군.